



최근 문을 연 임방울전시관에는 임선생의 사진과 음반 등이 전시돼 있으며 있으며 '쑥대머리' 등 선생의 육성도 직접 들을 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선생이 공연 때 사용했던 낡은 북은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공연을 알리는 조금은 촌스러운 포스터와 선생이 녹음했던 낡은 LP판..

최근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별관인 빛고을아트센터로 이사 간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배)가 임방울 선생의 유품과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은 기념관을 마련했다.

광주가 낳은 국창 임방울(1904~1961년). 수차례 피를 토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된 그는 25세 첫무대에서 '쑥대머리'를 불러 단숨에 국민들을 사로잡았고 레코드판 120만장 판매라는 전무후무한 기록도 남겼다. '소리하는 사람은 소리를 안 하면 죽은 목숨'이라는 자신의 말대로, 병든 몸을 이끌고 무대에 올랐던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6개월 후 세상을 이

별했다.

임방울 선생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관에는 선생의 삶을 자세히 묘사한 연보와 각종 사진, 전집 음반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특히 요즘 사람들에게는 '전설'로만 내려오던 임방울 선생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 귀한 자료들이 눈길을 끈다. 기념관에는 선생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1956년 '수궁가' 공연 실황과 1957년 '적벽가' 공연

실황, '춘향가'중 '이화춘풍' 대목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 또 유명한 오케이 레코드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던 임방울의 '토막소리'도 감상할 수 있다.

소리꾼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득음'. 기념관 한쪽에는 소리체험실을 마련, 방문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측정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역대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의 면면도 전시해 두었다.

한편 현재 임방울진흥회는 광산문화원

임방울 선생이 사용하던 북



에 위탁운영을 맡기다 최근까지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잠시 중단했던 국악 교실도 재개했다. 판소리, 무용, 고법, 민요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100여명이 강의를 받고 있으며 국악인 조통달 등 유명 예술인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문의 062-521-07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임방울 국악진흥회, 빛고을아트센터에 기념관 마련
사진·음반 등 전시... '수궁가' 등 육성도 들을 수 있어

국창 임방울 선생 발자취·예술혼 생생

자신만의 소리로 민초들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졌던 임방울 선생은 시대의 영웅이었다. 그가 부르는 '쑥대머리'와 '호남가' 한구절에 백성들은 울고 웃으며 시름을 잊었다.

죽을 때까지 무대를 떠나지 않았던 예술인이었던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과 사랑이 춤사위로 만들어졌다.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과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은 24~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남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가객(歌客)-국창 임방울을 노래하다'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작품은 좀처럼 함께 하기 어려운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의 어울림이라는 데도 의미가 있다.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현대무용의 매력과 정중동의 미학을 풀어내는 한국무용의 멋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주홍씨의 샌드애니메이션과 황정남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24~25일 '가객-국창 임방울을 노래하다' 공연

씨의 영상, 음악 등이 어우러져 색다른 무대를 만들어낸다.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은 지금까지 허백련, 심수관 등 문화 인물들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왔고,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임지형&현대무용단 역시 '심정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등 자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작품은 프롤로그 '암울한 시대'와 에필로그 '아!임방울'을 포함, '소리를 만나다', '쑥대머리', '처연한 사랑', '운명과 집

거', '진양조의 추억', '고단한 시대에서', '국창을 떠나보내다' 등 7장으로 구성돼 있다.

주인공 임방울역은 김현근씨가 맡았으며 임방울과 애절한 사랑을 나눴던 산호주역으로 한명선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그밖에 홍기준·홍예리·황소희·김미선·김보민·이슬기씨 등 40여명의 단원이 출연한다. 문의 062-230-7422.



임방울 역 김현근



산호주 역 한명선

낙죽장 김기찬 명인 '빛과 하나되어'

내달 15일까지 남부대 우암갤러리



'남보고 오직 할 수 있는 김탄사'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 낙죽장 김기찬 명인이 오는 12월 15일까지 남부대학교 우암국제교육원 내 우암문화갤러리에서 '빛과 하나되어'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화려한 그림을 새겨 넣은 알레빗과 비너를 비롯해 대나무, 나무뿌리 등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또 오석심·신경석·장금식·신문순·김삼식·박원식씨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그는 지난 1978년 송광사에서 그림 공부를 시작했고, 1985년 전남공예대전에 빛을 소재로 한 작품을 발표하며 알레빗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0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낙죽장 알레빗 기능전수자로 인정받았고, 지금은 보성 서재필기념공원에 자신의 호를 딴 '계심헌'을 열고 후배 양성과 작품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문의 062-970-000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양화가 김상선

'바람소리'

26일~1월10일 고흥남포미술관



'바람소리-백도'

중견 서양화가 김상선씨가 오는 26일~2012년 1월 10일까지 고흥 남포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바람소리'를 주제로 연두와 초록색을 사용해 수채화처럼 깨끗하고 맑은 바람과 물의 풍경을 선사한다.

개나리, 수양버들, 단풍 등 계절에 따라 변

하는 나무들을 풍부한 색감으로 형상화했다. 화려한 색과 자유로운 선의 조화가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조선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미협 전남 지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여수 한영고등학교에 재직중이다. 문의 061-832-000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세계미술제 우수상 조혜영

'여러 점으로'

28일까지 신세계갤러리



'green'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28일까지 광주신세계미술제 우수상 수상작가인 조혜영씨의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조씨는 '여러 점으로'를 주제로 장소와 건축물들의 단편을 불투명한 색채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낯선 의문의 장소들은 제한된 선과 색채를 만나 더욱

적막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프랑스 라세르즈 국립미술학교를 나온 뒤 금호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동했으며, 중앙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www.geumsoojang.com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이상)
 -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이상)
 - 오찬정식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 예금주 박추환